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3월 19일

Cuomo 주지사, 뉴욕으로 오는 2014 NCAA 남자 농구 토너먼트 환영, 3월 행사가 BUFFALO에서 시작됨에 따라 EMPIRE STATE 팀의 행운 기원

2차전과 3차전은 이번 주 Buffalo에서 열리고, 동부 지역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다음 주 뉴욕시에서 개최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내일부터 Buffalo에서 시작하여 다음 주 뉴욕시에서 이어지는 2014 NCAA 남자 농구 토너먼트를 환영했고, 뉴욕주에 오는 수천여 명의 대학 농구팬들이 뉴욕주의 가장 큰 연례 스포츠 행사 중 하나를 경험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내일부터 Buffalo 카운티의 Queen City 해안가에 위치한 First Niagara Center에서는 남자 토너먼트 2차전과 3차전이 열릴 예정이며, 행사를 통해 약 5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뉴욕시 Madison Square Garden에서는 동부 지역 준결승 및 결승전이 열립니다. 주지사는 또한 올해 여자 및 남자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뉴욕주의 9개 팀에 행운을 빌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Buffalo와 뉴욕시에 오는 NCAA을 환영하고 그들의 열정, 기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가 뉴욕주와 특히 Buffalo에 큰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것은 명실상부합니다. 이곳에서 대학 농구팬들은 경기 이후 크게 변화한 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Western New York에서 열리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NCAA가 다음 주 뉴욕시에서 열리는 동부 지역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극적인 경기 장면을 통해 들뜬 관중들의 흥분은 결코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결승전에서는 하나의 팀이 뉴욕시에서 열리는 결승 4강전에서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6개의 여성팀과 3개의 남자팀이 올해 각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뉴욕주는 '빅 댄스(Big Dance)'에서 경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뉴욕의 모든 팀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예정된 6개 경기는 Buffalo가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대학 농구 대회를 개최하는 카운티로 선정된 2010년 이후 최초의 경기입니다. 2차와 3차 경기의 주최 지역인 Queen City는 경기에 참석하는 팬들에게 문화적 명소, 식당, 일반 숙소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18,000여 명의 외지에서 온 팬들이 경기 기간 동안 Buffalo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isit Buffalo Niagara의 사장 겸 CEO인 Patrick Kaler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52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Korean

경기 외에도 Buffalo는 이번 주에 1,500여 명의 Buffalo 학교 학생들이 방문 팀과 소통할 수 있도록 3월 19일 “Kids Day(어린이 날)”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50,000달러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자원 봉사자들이 입는 재킷 등 행사 관련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yracuse 대학은 목요일 오후 First Niagara Center에서 열리는 Western Michigan과의 경기에서 Empire State를 대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2차전과 3차전이 끝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뉴욕시에서 NCAA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일요일에는 Madison Square Garden에서 동부 지역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열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